

✿ 공개설정 ✿

" 길을 잃었나요? 나와 함께 가요. "

[이름]

카렐리 비아트리스 Karely Beatrice

[두상]



[외관]



어깨에 달지 않는 길이의 짧은 붉은 머리칼, 사파이어를 닮은 짙고 푸른 눈동자, 밝고 건강미 넘치는 피부, 가느다랗고 긴 손가락, 가지런히 잘 정돈된 손톱.

[○○의 만월]



무용가의 만월

5살 때부터 그는 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으며 재능을 가꿔왔다. 그가 인재로서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10살로 꽤 어린 나이였으나 실력만큼은 대단했기에 많은 이들이 그의 춤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현재 그가 개발한 재즈와 발레의 분위기가 적절하게 섞인 독특한 무용법으로 인해 그는 빠르게 국민들의 인지도를 쌓아나갔다.

그의 아름다운 춤선을 본 모든 이는 평생 잊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

[인지도]

★★★★☆

[나이]

26

[국적]

캐나다

[성별]

여성

[키 / 몸무게]

164cm(굽미포) | 51kg

[성격]

여유로운 | 느긋한 | 참을성이 강한 | 남을 배려하는
급한 일이 있더라도 조금해하지 않는 여유로움의 소유자. 또한 자신보다 먼저 남에게 양보하는 배려적인 면모를 지녔다. 타인의 일에 쉽게 공감하며 특히 자신보다 어리고 약한 사람은 더욱 챙겨주려 한다.

확고한 | 신념있는 | 관찰력있는 | 능동적인
해도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의 도덕적 예절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며 최대한 이를 지키려 한다. 항상 남의 행동과 자신의 행동을 주의깊게 관찰하며, 또한 이 때문인지 모든 일에 적극적인 면을 보인다.

타인에게 살가우며 주변 인물 발 넓히는 일을 잘한다.

자부심 있는 | 자신을 사랑하는 | 나르시즘
언제 어디서든 굴하지 않고 미모, 실력, 모든 것을 포함한 자기 자신에 대한 큰 애착을 드러낸다. 딱히 남이 인정해주길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버릇같은 것이지만 인정해줄 경우 크게 기뻐한다.

[기타]

- 애칭은 카렌karen. 대체로 많은 이들이 이 이름으로 부른다.
- 평소에는 구두를 신지 않고 들고다니며 맨발로 다닌다. 그것이 본인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인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래서인지 그의 발에는 자잘한 상처들이 많다.
- 대체로 모두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며 ~씨 호칭으로 부른다.
-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용을 가르치는 강사일을 하고 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짧게. 하지만 그의 명성이 높은 탓인지 일단 뭐라도 배워보겠다는 부모들의 행렬로

인해 꽤 인기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매스컴에서도 여러 번 가시화됐기에 무용에 관심있는 이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정도다.

- 생일_3월 28일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확실치 않다. 본인 또한 어떠한 언급이 없기에 팬들 사이에서는 거의 굳혀지고 있는 추세. 어디에서는 그가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날짜라는 말도 있다. 어찌되었든 팬들끼리의 기념일 날짜로 쓰인다.
- 가족관계_부모님 두 분과 카렐리 세 식구. 형제는 따로 없으며 외동이다. 가족과의 별다른 언급은 잘 하지 않는 편이지만 무난하게 잘 지내는 것을 보인다.
- 취미_향수 모으기, 기사 읽기, 기사에서 자신과 관련된 내용 스크랩하기.

[소지품]

- 빨간 구두_만월의 칭호를 얻었을 때 부모님이 주신 선물. 평소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으며 공연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 구두를 신고 무대에 오른다.
- 미니 구급상자(소량의 밴드, 거즈, 붕대가 들어있다)

✿비밀설정✿

" 남의 비위 맞추기? 이제 질렸어. "

[○○의 만월]



무용가의 만월

5살, 그 어린 나이에 카렐리는 마땅한 선택지 없이 부모의 지지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무용을 시작했다. 이전까지 춤에 관심조차 없던 그에게 있어서는 지옥같은 날들이었고 무용을 그만두겠다는 어린 아이의 설득은 '넌 재능이 있어' 라는 말로 돌아올 뿐이었다. 실제로 카렐리에게는 재능이 있었다. 하지만 정점에 서기에는 빈약했고 모자란 실력은 노력으로 매꿀 수 밖에 없었다. 갖은 노력끝에 카렐리는 만월 칭호를 얻을 수 있었으나 그가 원한 것은 아니었다. 무대에 오를 때마다 그 고통은 끊이지 않았으나 카렐리는 절대 춤을 그만 둘 수 없었다. 조명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과, 사람들의 찬사와, 박수 갈채 소리가 너무 달콤했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카렐리는 아직도 그 빨간 구두를 놓지 못한다.

【성격】

중립적 | 수동적 | 남의 비위를 맞추는

그가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단순히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환심을 사기 위한 계략중 일부일 뿐이다. 어릴 적부터 타인의 시선을 신경쓰기 일수였기에 누구 한 명이라도 잘 보이려는 의지가 강하다. 또한 자신의 이런 약하고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기 매우 꺼려하며 이미지 관리에 힘썼다. 때문에 남이 본인의 의사를 묻거나 하면 꽤 당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괴팍한 | 성깔있는 | 성급한

어떠한 일을 참는 것을 잘 하지 못한다. 여유로운 척 고상함을 부리는 것은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일뿐. 남을 먼저 헤아리라 배웠으나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자신의 이익 추구 욕심을 억누르지 못한다. 궁금한 것도 별로 참지 못한다.

하지만 남의 시선에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 지에 대해 매우 예민하기에 이런 모습은 좀처럼 대중에게 비춰진 적이 없다.

나르시즘? | 자기혐오적인

자신의 일에 대한 혐오감과 자부심이 동시에 존재한다. 본인이 제 일에 대해 한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남이 그 것으로 명예를 까내릴 때 절대 참지 못한다.

'나는 대단한 점은 없지만 적어도 남들에게 꼴리지 않으며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의 제일 결점은 이중성이다.

[기타]

- 9살까지 반말을 사용했으나 데뷔 이후로는 부모님의 명령하에 모든 이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다. 속으로 생각하거나 혼잣말을 할 때에는 반말을 쓴다. 말투 역시 포장용이며 드물게 가끔씩 욕하면 저도 모르게 나오기도 한다.
- 무용일을 할 때가 아니라면 자신의 구두를 절대 신지 않으며 바라보는 것조차 꺼려한다. 하지만 굳이 챙기고 다니는 이유는 남의 시선이 많이 닿는 곳에서는 신고다니기 때문. 그 외 상황에서는 들고다닌다.
- 생일_11월 19일. 이에 대해서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생일날을 따로 챙기거나 하지도 않는다. 어린 날에는 주로 레슨에 바빴기에 홀로 새로 산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지금은 자신이 딱히 원하지 않기에 그냥 지나친다.
- 가족관계_무난하게 지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평범한 가정은 아니다. 부모님은 카렐리를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하지만 그는 부모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대화 역시 대체로 일방적이다.
- 취미_향수 모으기, 기사 읽기, 기사에서 자신과 관련된 내용 스크랩하기, 자신의 기사에 달린 악플들 pdf 저장해놓기.

[소지품]

- 빨간 구두_카렐리의 무용에 대한 미련과 욕심. 제일 싫어하고 혐오하지만 영원히 그가 버리지 못하는 것.
- 미니 구급상자(소량의 밴드, 거즈, 붕대가 들어있다)

아래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혈액 색상]

#FE2E64



✿ 가차 ✿

【선호물품】

향수, 발이 편한 신발

【비선호물품】

구두, 드레스